

김일곤은 같은 달 17일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간호사를 위협하면서 “개를 인락사시키는 약을 달라”고 요구하다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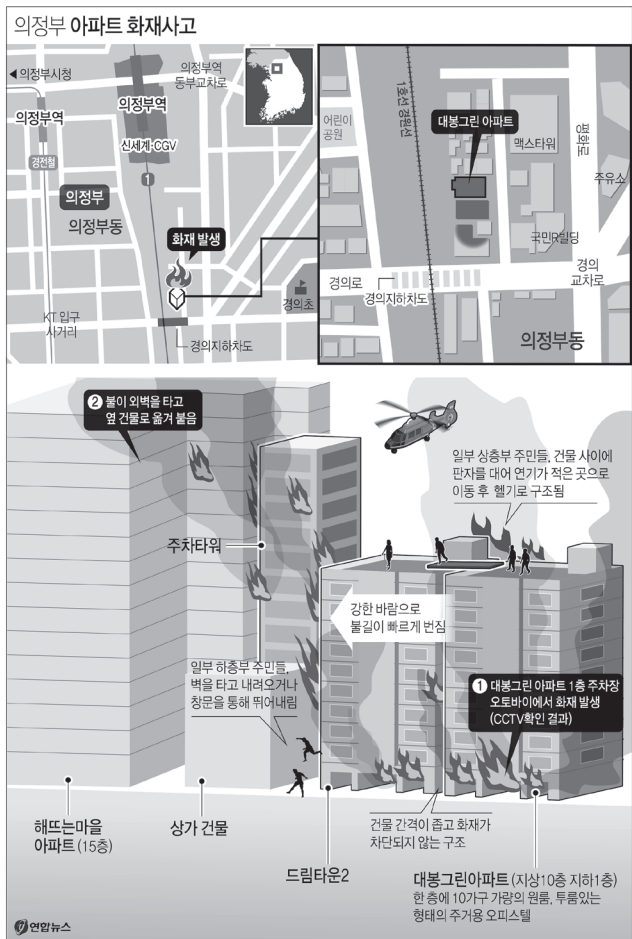
경찰은 김일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5월 A 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시비가 붙어 벌금형을 선고 받자 A 씨와 사건 재판장, 과거 자신을 검거한 형사 등 28명의 살생부를 갖고 다니면서 이들을 살해하려 했으며, 주 씨는 이들을 살해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납치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 감금·학대받던 11세 소녀 ‘필사의 탈출’…아동 학대 이슈화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집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상점 주인에게 들킨 A(11)양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경찰이 A양의 부모를 조사해보니 아버지 B(32) 씨는 게임중독에 빠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 감금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가혹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한 A양은 4세 짜리 평균 몸무게인 16kg밖에 나가지 않았고, 늘골 골절에 팔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했고, 초등생 시신 훼손 보관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추가 아동학대 사건이 줄줄이 밝혀졌다.



사건·사고

■ 의정부아파트 불...사상자 100여 명 발생

2015년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물 3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9시27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한경진(26·여) 씨 등 4명이 숨지고 주민 10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부상자 중 10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불은 인근 건물로 확산돼 10층과 15층짜리 건물 등 3개 동을 태웠다. 또 다른 4층짜리 원룸 건물과 주차타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2곳도 피해를 봤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20대도 모두 태웠고, 불은 발생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44분경 진화됐다.

의정부시는 인근 경의초등학교에 이재민 임시거처를 마련했으며, 최대 200명이 이곳에서 지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은 아파트 1층 우편함 옆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이 확인됐다. 오토바이에서 시

작된 불이 인근 차량으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불이 난 건물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돼 불이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 파주 LG디스플레이 질소 누출...2명 사망·4명 부상

1월 12일 오후 12시50분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30대인 이모 씨와 문모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4명이 부상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사망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들은 공장 9층에서 TM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TM 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직후 LG디스플레이단지 자체 소방대가 방재 작업을 벌이고 부상자를 이송했다.

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지닌 물질은 아니며 오히려 공기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물질이지만 밀폐된 공간에 질소 유입이나 누출로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산소농도가 떨어지면서 질식사 가능성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산소 농도가 16% 아래로 떨어지면 질식사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영종대교서 106중 추돌…역대 최악 다중 추돌사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사상 최다인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

2월 11일 오전 9시40분께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유모(60) 씨가 1차로에서 몰던 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62) 씨의 택시를 추돌, 한 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2차로를 달리던 최모(58·여) 씨의 공항리무진버스는 한 씨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어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다.

질은 안개와 과속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빚어진 이 사고는 2011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4중 추돌사고를 뛰어 넘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됐다.

■ 엽총으로 형 부부 살해 후 자살, 출동 경찰관도 숨져

경기 화성에서 형제 간 불화로 7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해 형 부부 등 4명이 숨졌다.

2월 27일 오전 9시34분께 전모(75) 씨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자신의 형(86)과 형수(84)를 엽총으로 살해했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에게도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하고서 자살했다. 경찰서 형사들이 10분 만인 오전 9시44분에 현장에 도착해 집 안을 샅샅이 훑고 이들 4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범인 전씨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전씨의 형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반감,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적혀 있었다. 또 '이날을 위해 모두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다. 세상 누구도 전혀 알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용의자 전씨는 범행 직전 남양파출소를 방문해 자신이 맡겨 놓은 사냥용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이 사건 이틀 전인 2월 25일에도 세종시에서 강모(50) 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 가거도 해상서 해경 응급헬기 추락

3월 13일 오후 8시2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남쪽 인근 해상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B-511 헬기가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질은 해무였다. 전용헬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거도에서 어린이 응급환자를 태우려 착륙을 시도하던 헬기가 해무에 회항하려다 그대로 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헬기에는 최승호(52) 경위, 백동홍(46) 경위 등 조종사 2명, 응급구조사 장용훈(29) 순경, 정비사 박근수(29) 경장 등 4명이 탑승했다. 박 경장은 사고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사고해역에서 구조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고, 최 경위와 백 경위의 시신은 수색 끝에 찾았지만 장 순경의 시신은 여전히 찾지 못

했다.

해당 헬기는 구조장비를 장착한 헬기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구조작업을 펼쳤던 헬기였다. 예비신랑에 1남 6녀 중 막내 등 사고가 난 탑승자들의 사연도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로 3명 사망

5월 13일 서울 내곡동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최모(23) 씨가 맨 왼쪽의 1사로에서 표적을 향해 1발을 쏜 뒤 갑자기 일어서서 뒤에 앉은 예비군과 오른쪽 2~5사로 예비군들에게 7발을 난사했다. 총기난사 직후 최씨는 자기 머리에 총을 쏘 자살했다. 이 사고로 다른 예비군 2명까지 총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최 씨는 범행 직전 "다 죽이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현역 시절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 그에게 실탄을 장전한 총을 쥐어주고 엄격한 통제도 하지 않았던 육군의 허술한 예비군 부대 운영이 처참한 살상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총기로 장난치던 경찰관 오발사고로 의경 사망

8월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 검문소에서 박모(54)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다 오발사고를 내 이에 맞은 박모(21) 상경이 숨졌다.

박 경위가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박 상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가슴 부위를 맞은 것이다. 1심 법원은 박 경위에 대해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이 사고 이후 경찰은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평소 총기 대신 전자총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 서울 양천구 중학교서 부탄가스 테러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이 학교에서 전학 간 중학교 3학년생이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이 크게 파손됐다. 9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이모(15) 군이 해당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켰다. 가스통이 터질 때 해당 학급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실 창문과 출입문, 벽 일부가 부서졌다.

이 군은 범행 후 유튜브에 범행 전후 장면을 찍은 동영상 올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댓글을 단 네티즌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이군은 경찰에 쫓기면서도 지하철 4개 노선을 갈타타면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언론과 인터뷰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군은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는데 추가 범행을 하려 휘발유와 과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은 구속됐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이 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 돌고래호 전복사고…뉘시어선 관리에 경종

9월 5일 저녁 제주도 추자도 신앙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향하던 뉘시어선 돌고래호(9.77·해남 선적)와의 통신이 끊겼다. 선박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배는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완도 선적 연안복합선 흥성호가 사고 해상을 지나가다가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김모(47) 씨 등 승선자 3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실종자 18명 가운데 15명의 시신을 추자도 해상에서 인양했지만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나머지 실종자 3명은 찾지 못했다.

해경 조사결과 스크루에 밧줄이 감겨 방향타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엔진을 끈 배가 갑자기 밀려 온 파도를 맞고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개선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었다.

바다낚시 영업행위가 과열되며 뉘시어선의 주먹구구식 손님모집,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 연락 두절 상황에도 난청 지역이 많다는 이유로 미문 신고,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명부 허위 작성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는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자 안전기준 위반 처벌 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꾸고 안전성 검사 주기를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승객 본인이 직접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뉘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 대구 신병훈련장 수류탄 사고로 3명 사상

9월 11일 오전 11시33분께 대구 육군 제50사단 신병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교관인 김모(27) 중사가 크게 다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53분께 숨졌다. 김 중사와 같이 참호 안에 있던 손모(20)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참호 밖에 있던 박모(27) 중사도 다리, 발목, 팔꿈치 등 신체 7군데에 파편이 박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 휴가나온 군인 칼부림…범인 살해한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

9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공릉동 양모(36) 씨의 집에 휴가를 나온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이 침입, 양 씨의 예비신부인 박모(33·여)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양씨는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숨지게 했다.

당시 강원도의 군 부대에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왔다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

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인천 팔미도 유람선 선착장 충돌…72명 부상

10월 4일 오후 1시38분께 승객 105명과 승무원 7명 등 112명을 태운 196급 유람선이 팔미도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선착장에 부딪히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사고 여객선은 인천 연안부두와 팔미도를 오가는 배로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넘어지면서 승객 7명과 승무원 1명 등 72명이 부상했다. 승객 중에는 유람선 관광에 나선 노인들이 많아 부상자 수가 늘어났다.

■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잇따라 화재



▲ 8월 24일 오전 9시 46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제소방서 제공>

11월 10일 오전 10시40분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천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해 숨졌다. 또 6명의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에서 용접 작업 중 튀었던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월 24일에도 이곳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서 화재…소방관 1명 순직

12월 3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목포 방향 2번 주탑 교량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끊어진 케이블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평택소방서 이병근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령)이 순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은 낙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케이블 복구 작업을 위해 차단됐던 서해대교는 같은 달 19일 0시를 기해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